

결핵환자 증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심 태 선

증례 1.

평소 건강하며 과거 폐질환의 병력이 없는 32세의 남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의 기침, 미열 및 각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3개월 전부터 오후에 발열 후 식은 땀을 흘리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체중이 3개월간에 62 kg에서 59 kg으로 감소하였고, 내원 1개월 전부터는 간헐적으로 혈액이 객담에 묻어 나왔다.

문1) 다음에 시행하여야 할 검사는?

문2) 흉부방사선 소견상 결핵이 의심되나 객담 항산균도말검사상 음성으로 나왔다.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문3) 객담 항산균도말검사상 1+로 나왔고, CBC, LFT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었다. 적절한 치료 및 조치는?

문4) 치료 종료 및 이후 추적검사는?

문5) 치료 도중 환자는 심한 위장장애를 주소로 예정보다 앞당겨 병원을 방문하였다. 적절한 조치는?

증례 2.

29세 된 여자 환자가 1개월간 지속된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평소 건강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다. 과거 결핵의 병력 없었고, 결핵의 위험인자(당뇨병 등) 없었으며 비흡연자이었다.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상 1+로 보고되었다. 흉부사진상 이상소견 없었다.

환자는 6개월 된 미숙아(출생체중 570 g)의 어머니였으며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다.

문1) 가능한 진단은?

문2) 환자에서 적절한 조치는?

문3) 아기에서 적절한 처치는?

증례 3.

18세 여자환자가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상 양성(1+)으로 보고되어 1차 항결핵약제를 투여하였다. 1달 후 시행한 흉부사진상 병변은 더 악화되었다.

문1) 가능한 원인은?

문2) 시행하여야 할 조치는?

증례 4.

평소 건강하던 45세 남자 환자가 수일 전부터 지속되는 우측 흡기성 흉통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흉부방사선 소견상 양측 상엽에 침윤과 공동성 병변이 보여 결핵이 의심되었고, 우측에 흉수가 관찰되었다. 과거 결핵력 없고, 20PY의 흡연자이었다.

문1) 적절한 조치는?

증례 5.

평소 건강한 25세의 여자환자가 우측 경부에 촉지되는 2 cm 크기의 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결절은 단단하였으나,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표면은 매끈하였다. 주위에 작은 결절이 몇 개 더 촉지되었다.

문1) 다음에 시행하여야 할 검사는?

문2) FNA검사상 malignant cell 음성, AFB staining음성, 만성 육아종성염증소견이 나왔다. 적절한 치료는?

문3) 치료 3개월이 되었으나 오히려 크기가 약간 더 증가된 것처럼 보였다. 필요한 조치는?

문4) 1개월이 더 지나면서 병변부위가 홍반을 띠면서 부드러워지고, 농양을 형성하여 조만간 터질 것 같은 양상을 보였다. 적절한 조치는?